

Isabelle Pateer (Netherlands)

Unsettled

The ongoing documentary series "Unsettled" focuses in a metaphoric way on the idea of "progress" in a case where living environment and heritage have to disappear because of industrial purposes.

Within this project this international tendency is illustrated by focusing on the Belgian village Doel and the surrounding polder area. The place is threatened by vast expansions of the port of Antwerp and related nature compensation plans, which installs an artificial contrast between nature and culture.

"Unsettled" illustrates this actual case in an indirect way, exceeding a pure documentary approach.

It shows portraits of young inhabitants alternated by landscapes which bare witness to the transformed state of the area. Leaving a sourish taste by contrasting the young with the local changes, they symbolise the international tendency of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hifts and the way they manifest themselves to the people and their surrou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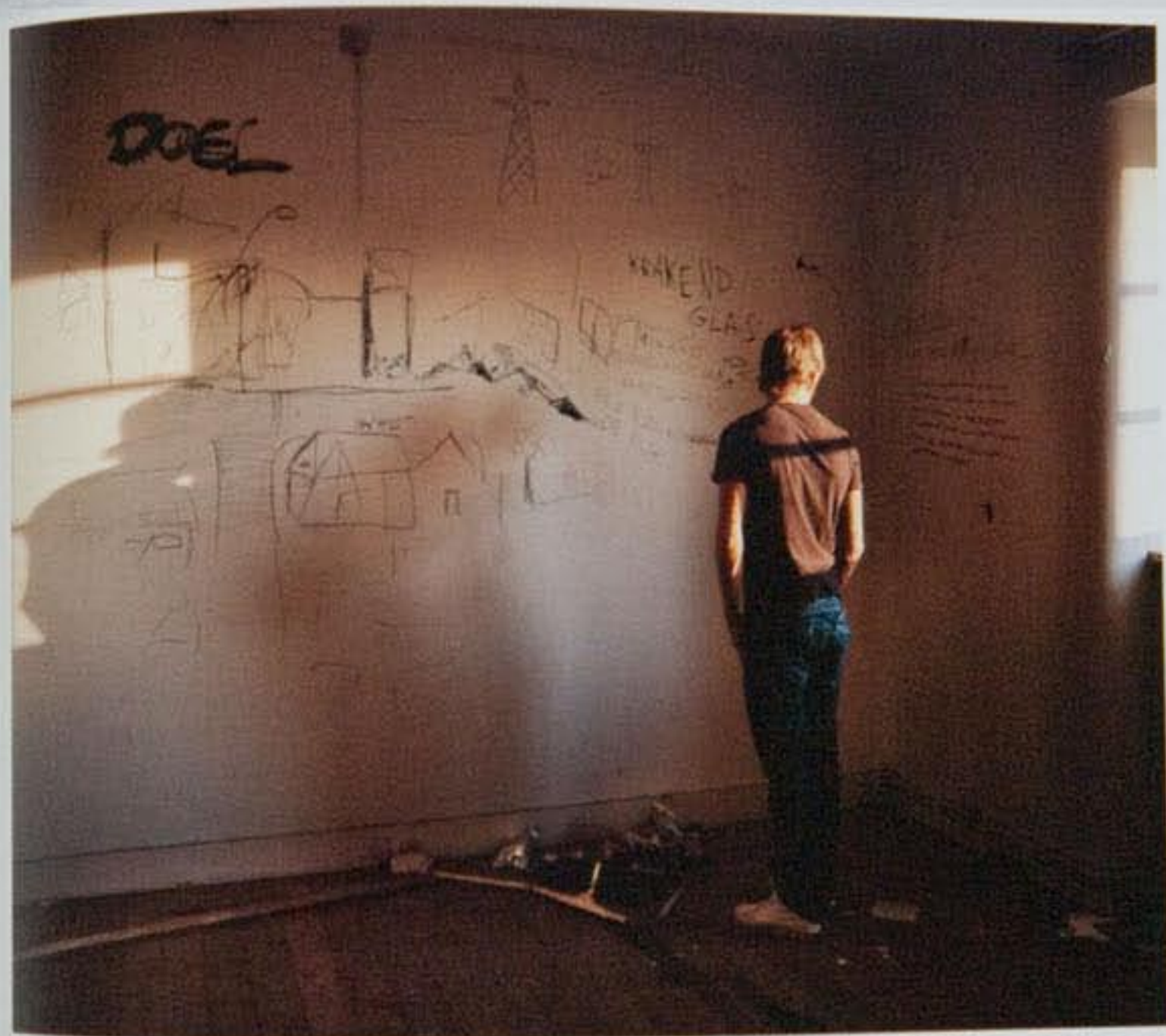
진행 중에 있는 다큐멘터리 'Unsettled' 시리즈는, 살아있는 환경과 유산이 산업화의 목적에 의해 사라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은유적인 방법으로 'progress(진보)'의 개념에 주목한다.

(이 프로젝트 내에서) Belgian Village(벨기에의 시골) Doel과 해안 간척지 주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러한 국제적 경향이 묘사된다. 그 장소는 거대한 Antwerp 항구의 확장과 연관된 자연 보수 계획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자연과 문화 사이에 인공적인 대조를 만든다.

'Unsettled'는 이 현실의 상황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순수한 다큐멘터리의 접근을 상회(초과)하는 방식이다.

이 시리즈는 그 지역의 변화된 상태에 대한 병거벗은 목격자인 (자연) 경관들에 따라 변질된 젊은 거주자들의 인물 사진을 보여준다. 젊은이들과 대조됨으로써 시련의 맛을 남기는 지역의 변화는, 지구적인 정치 경제 흐름의 국제적인 경향을 상징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그리고 그들 주변에 그들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상징한다.

Young Works 2010



Antonia, final print, 80x100cm, 2009